

변화된 환경에 맞게 시설을 전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좌담일 : 2005년 6월 16일

좌담장소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회의실

사 회 : 김찬동(출판미디어사업팀장)

좌담자 : 김갑수(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오세곤(본지 편집위원/연극평론가)

박신의(본지 편집위원/미술평론가)



사진 왼쪽부터 김찬동, 박신의, 김갑수, 오세곤

사회자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전환을 앞두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 부설시설의 운영 변화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의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이하 미술관)은 1974년 개관했고(현재 동숭동에서 79년에 개관), 예술정보관(이하 정보관) 1979년,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이하 예술극장) 1981년, 문화예술연수원(이하 연수원)은 1986년에 각각 개관했습니다. 그 동안 경제적으로 열악한 작가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 지원시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고, 대국민 문화정보나 교육 서비스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최근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 증진에 부흥하기 위해 운영개선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예술계 전체로 많은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개선의 필요성들을 각 관점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운영성과나 그 외 것들에 연결시켜서 운영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십시오. 예술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정책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근 예술극장과 정보관, 연수원의 그 동안의 과정과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부분과 현장 부분을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책면에서 보면 예술극장은 공연예술의 현장, 정보관은 정보기능의 역할을 해야겠고, 연수원은 교육 측면에서 봐야겠죠. 예술극장의 경우에는 전국의 문예회관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공공 공연장의 모델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술극장의 대관 자체가 혜택이고 지원입니다. 즉 연극, 무용 모두 마찬가지로겠지만 굉장히 얻기 힘든, 시설은 좋지만 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좋은 극장입니다. 그렇다보니 제일 빈번한 불만이 “왜 문예진흥원이 자체 기획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공연 때문에 실제 일반 단체나 극단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낮습니다.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대관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많지요. 그러나 만약 예술극장 상황이 개선되면 모델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델이 되려면 단순 대관만 아니라 좋은 작품을 기획 초청하기도 하고 교육적인 기능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어쨌든 지금은 양쪽을 절충해 언제까지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정보관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너무 낮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인데, 하지만 영상자료원에 비해 문예진흥원의 예술정보관은 지명도도 낮고, 인력도 구색 맞추기 정도이지 뭔가 시도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지원형태를 얘기함에 있어서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보지원, 인력지원까지 포함하고, 그 구심점이 되는 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보관이 어떠한 소속관계를 갖느냐에 상관없이 대본, 인적자료 등 많은 정보가 있고 그것을 상호 연결시키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수원의 경우에는 좀더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카데미와 숙소 역할을 하던 연수원이 몇 년 전부터는 교육 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고 기존 공사립 예술대학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문예진흥원 산하의 교육기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술인들의 재교육기관으로 가야하나, 아니면 일반 예술대학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가야하나?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이요.

박신의 직접 각 관의 얘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먼저 다뤄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앞에서도 시설 운영의 탄생을 얘기했지만 그것이 일종의 간접지원 형식으로 탄생했고 그래서 실제로 대관을 중심으로 한 이유도 그런 거였어요.

간접지원의 형식을 공연장소, 전시장소, 정보, 연수, 재교육으로 한 것인데 그 개념이 위원회 전환으로 갈 경우 이를 소속기관으로 할 경우의 자금 확보와 운영문제, 전체 시설의 위상에 대해 먼저 토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은 그간 내부에서도 계속 진행되었던 것인데, 문제는 진흥원이 위원회로 구도가 달라지면 서 그 목표도 정책적 지향점과 함께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내부의 개선 논의는 2000년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전환과 맞물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정책적 차원에서 그 절박한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갑수 그 측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 출범에 즈음해서 예술지원정책의 시스템이나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위원회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영역인데 초기의 예술행적, 예술지원 시스템이 분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의 주관부서가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정부의 경우에도 문화부가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직접적인 행정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하나하나씩 독립을 시키는 형태로 움직여 왔는데, 문예진흥원 역시 그동안 수행해 왔던 시설 및 기능을 독립시킨 것이 많습니다. 문화정책연구원이나 문학번역원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문예진흥원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 예술영역과 기능을 담당했지만 점점 전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마로니에미술관 전경

맡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영역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회가 지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의 개념이라는 것이 종전과 같이 시설을 직접 보유한다든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가지고는 복잡해지는 예술행정의 추세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위원회가 앞으로 시설이나 기능들을 가급적이면 외부의 문화예술 단체에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민간단체가 맡아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예술 단체의 관리영역, 행정영역을 키워주는 측면에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위원회간에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협치행정체제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4대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는 나름대로의 공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었지만 문제점 중 하나는 전문가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문예진흥원 소속 행정직원 중심의 순환보직용으로 운영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책임성이나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56명의 직원에 의하여 4대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정규직이 23명, 계약직이 33명인데 계약직은 전문가들인 데 반하여 정규직은 대부분 비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대 시설은 책임경영체제, 전문 예술가 주도의 현장중심체제로 운영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신의 그것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입니까?

김갑수 기본적으로 4대 시설의 기능과 운영문제를 고려할 때에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위원회가 해야 할 핵심적 기능, 즉 지원정책 기능에 집중해서 역량을 투입할 것입니다. 문예진흥원 인력규모가 현재 정원 88명인데, 향후 정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재원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4대 시설은 전문경영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위원회와 4대 시설과의 관계는 계속 형성이 되어야 하겠죠.

박신의 위원회로 전환하게 되면 위원회가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정책에 집중하고, 현재 있는 시설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하거나 책임운영제 등의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4대 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지는 주장이 실제로는 지원정책과 크게 다른 맥락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4대 시설의 운영개선을 제기했던 사람들의 입장은 그 시설들을 문예진흥원 지원정책의 실험의 장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보거든요. 문예진흥원의 지원이 대체로 현금을 배분하는 식의 형태로만 있지 않고, 현장 속에서 지원정책이 구현되는 경우까지 지원으로 본다는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문화기관 시설의 공공성을 살리는 모델로서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다면 위원회가 지원정책의 실험의 장으로서 4대 기관시설을 연속적으로 확보하고, 아웃소싱이나 위탁경영 등의 책임운영제로 전환하여 전문성이 확보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텐데요. 그런데 그럴 경우 행정적인 관계나 운영재원 확보의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회자 정책적인 차원과 예술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성 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동안 초기 미분화된 지원정책으로부터 분화된 시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시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개선 필요성의 주요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합니다. 개선을 논의할 때 4대 시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4대 시설을 단순한 물리적 지원시설, 간접 지원시설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설로 인식하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시설이 떨어져 나가서 독립된 시설로만 존재하게 될 때는 일반적인 공연장이나 전시장, 아카이브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측면도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문화적 변화와 예술계의 요구들을 생각할 때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위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운영개선할 때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4대 시설을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정체성을 두고 전환을 시켜서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원회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명분 하에 형식만 무조건 바뀌야 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개선을 하더라도 개선된 결과로서의 시설이 표방하는 정체성은 무엇이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할 때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무엇의 전문성이나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학이나 예술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경영적, 행정적 차원에서 전문성이나를 짚어봐야겠습니다. 또 시설운영의 목표를 창작과 향수자들 모두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창작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향수를 높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도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대 시설이 어떤 정체성을 목표로 해서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오세곤 김갑수 과장님의 말씀처럼 그 동안에도 독립된 전례가 많다고 했을 때 4대 관의 성격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위원회 소속으로 하더라도 향후 독립을 전제로 해야 할 성격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김갑수 제 말씀의 취지는 그것을 반드시 독립시켜 별도의 독립된 운영체제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 시설이 예술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4대 시설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극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모델 기능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로에 있는 분들은 저렴한 대관료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독립법인이나 책임운영기관들을 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 방향은 그런 측면이 아니겠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곤 정보관의 경우 그것이 단순한 자료관의 기능만을 한다면 독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회 전환에 맞추어 공연 분야에서는 반드시 공연종합정보센터가 생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 센터역할이라면 독립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처럼 번두리에 있을 게 아니라 중심 쪽으로 강화시켜야겠죠.

예술극장과 미술관의 경우엔 모델 제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술 발표 현장으로서 지원의 기능

을 우선할 것이냐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현재 공연장 하나에서 모든 장르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모델 제시를 위한 예술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맞는 개선이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한 수량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고, 직접운영보다는 위탁운영이나 아웃소싱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재교육이나, 특정 부분의 담당이나를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데 그 동안은 중구난방 식의 프로그램 변화가 있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학원 코스인지, 학부 코스인지, 전문학교인지 구별이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분명해야 위원회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언젠가 독립을 시켜야 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간 문예진흥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이 시설들을 하나의 간접지원시설로써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공간으로써 의미를 두기 때문에 문예진흥원이나 위원회가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의 특화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웃소싱만으로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갑수 4대 시설이 예술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 예술계에 이러한 시설들이 없었을 때와는 달리 현재는 극장이나 미술관들도 많아지고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4대 시설이 공공 부문의 정책 수단으로서 갖는 의미가 상대적으로는 작아졌습니다. 지원이라는 틀 속에서 계속해서 문예진흥원이 다양한 문화예술시설들을 직접 보유하면서 운영할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는 좀더 집중해서 중장기적인 지원구조를 설정하고, 정책적 기능을 개발해야 하는데, 시설 운영에 매달린다면 위원회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장 이외에 위원들이 비상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엔 4대 시설은 현재와 같이 행정직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전문성 저하 등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성 측면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자율성과 현장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4대 시설도 같은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술가의 참여, 전문가의 운영, 그러면서도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4대 시설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예술극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모델 기능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로에 있는 분들은 저렴한 대관료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독립법인이나 책임운영기관들을 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 방향은 그런 측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신의 네. 저도 일단은 4대 시설이 하나로 묶일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4개 시설은 성격상 다시 두 영역으로 나뉜다고 봅니다. 예술극장과 미술관이 창작의 발표공간으로 분류가 되겠고, 연수원과 정보관 같은 경우엔 정보와 재교육 시스템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극장의 경우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 특별히 의견을 내놓기는 그렇습니다만, 미술관 같은 경우엔 예술극장과 또 다른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마로니에미술관은 예술극장과 같이 대여료가 낮은 임대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공공미술관의 모델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이 사립 미술관이고,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서울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서울시립미술관과 예술의전당, 마로니에미술관 세 곳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나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 소속이어서 서울시 정책과 함께 가는 것이고,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도 대관 중심이다 보니, 그나마 마로니에미술관에 보다 진보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마로니에미술관은 최근 새로운 기획을 실행하고 국제교류에서도 새로운 차원을 시도한다는 점, 또 큐레이터십과 관련한 교육과 실제 적용공간으로 활용하는 점 등 지원정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맞닿아 있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신진작가 발굴과 대안공간적 성격을 실천하는 인사미술공간의 활동까지를 고려한다면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미술을 시도할 수 있는 곳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요. 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은 위원회 체제에서도 개선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된다면 중요한 모델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정보관은 기본적으로 정보관 자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마련하는 것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종의 자료를 대여하는 기능이 아니라, 예술 전반의 자료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의미에서 아카이브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 실제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위원회 소속으로 충분히 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 채록사업' 같은 것을 보더라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늦게 시작한 사업이지만, 채록 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아카이브가 세계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아카이브 개념은 채록사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가 정보 및 예술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면, 위원회 속에서의 지원정책을 확장하는 개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수원 같은 경우는 재교육이나 교육 개념의 위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연수원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편이어서 일단은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세근 4개의 시설들이 현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위원회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상 수상 작품들을 발표하는 등 장르별로 특화된 모델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지원개념이라고 한다면 미술의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연 분야는 턱도 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지원개념이라면 직접 가지고 있기보다는 위탁 경영이 좋고 또 일단은 지원개념의 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정체성이 불확실하니까 기획공연도 하고 대관도 하는데, 확실하게 중심이 지원시설인가 새로운 모델 제시인가를 구분 지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수 저는 해당시설의 전문화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전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대학로극장이 개관하면 극장뿐 아니라 상가와 건물의 시설관리까지 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수십 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의 역량과 자원이 투입되다 보면 위원회 자체의 기능이 전 문화가 안 된다는 거죠. 해당시설의 전문화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어떠한 기능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박신의 유니베르시테와 같은 복합공간 같은 경우 위원회 전환 후에도 소속기관으로 전제한 것이지요?

사회자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위원회 전환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신의 실제로 유니베르시테 사업은 건립 예산만이 아니라 운영 예산도 만만치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4대 시설 논의가 실제로는 공연 쪽에 편중된 것 같네요. 이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까. 연수원의 경우도 무대예술가들의 교육이 추가 되고 있지 않나요?

사회자 무대예술보다도 사실 주안점을 예술행정가들의 교육에 두고 있습니다. 예술행정가들의 교육이 추가 되고 공연 예술 아카데미가 나중에 생겼죠. 일각에선 문화부에 신설된 예술교육 업무와 연관지어 연수원의 기능을 문화부가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는 실정입니다만 내부에서는 별도의 개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시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가들 전문교육이나 재교육이 필요하다면 벽제의 교육시설이 협소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인데 협소한 공간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큰 공간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현행 연수원에서는 공연예술 쪽에 무대 예술가들 재교육 부문을 가지고 특화한다거나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김갑수 연수원의 시설 활용도는 약하다고 봅니다. 위치도 좋지 않고 시설도 다양하지 못하여 활용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수원은 크게 3개 과정을 운영중인데 예술경영자 단기 과정과 문화행정 공무원, 또 하나는 무대연수 과정입니다.

전문예술가에 대한 교육은 각 학교나 제도권에 많은 과정이 있으니까 연수원은 예술매개자를 양성하는 기능으로 특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예술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현장의 예술교사나 강사들에 대한 재교육 및 각종 문예시설 운영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오세곤 매개자 교육기관으로 갈 것이냐 본격적인 예술가 재교육 기관으로 갈 것이냐 예술가 교육 지도를 놓고 빈 공간을 본다면 말씀대로 매개자 교육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재교육 부분이거든요. 장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시급하다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재교육 받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메리트가 있겠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박신의 무대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정말 필요한 것인가요? 여기서 무대예술 교육은 스태프를 양성하는 것인데.

오세곤 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고 교육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의 그렇다면 이곳의 특화를 위해서는 문화행정가들보다는 무대예술 전문가와 매개자 양성교육으로 가는 것이 새로운 위상 설정이 되는 것인가요?

오세곤 무대미술의 경우 대학에서 충분한 과목 개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들어가서 다니면서 자격증 준비를 하는 거죠. 자격연수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했던 것을 업그레이드시킨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더 많은 것을 짧은 기간에 배우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의 구도라면 대학이 정상화되면 얘기가 달라 집니다.

박신의 그렇죠. 대학이 이런 과를 만들게 되면 달라지죠.

오세곤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눈치가 보여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재교육은 연극의 경우 전국적으로 배우가 몇 천 명이 되는데 특히 돈 주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기술을 안 배워 놓았기 때문에 캐스팅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재교육 기관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합니다.

박신의 그렇다면 무대예술 자격증 문제와 교육계의 시스템이 연결이 되나요?

사회자 자격증은 국립중앙극장에서 관리를 하고요, 여기서는 교육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갑수 연수원은 무대예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죠.

박신의 예술경영에서 전시기획이나 큐레이터십에 관련한 교육의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과의 박물관·미술관 경영전공의 학생들은 수업 내용이 학과 수업과 거의 일치하는 데도 그냥 불안한 마음에 또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는 상황입니다. 같은 수업에 같은 강사진임에도 문예진흥원의 수료증을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 해서 듣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중복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커리큘럼의 구도 내에서 심도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교육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공공기관에서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요. 이런 부분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세곤 예술경영이나 행정은 이쪽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대학에 강좌가 생겼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이지만, 무대미술의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박신의 여전히 유효한데 전시기획 프로그램은 없어졌지요?

사회자 네. 지적하신 대로 단기교육으로 내실을 기할 수 없고 전시시설 내에서의 현장교육이 실질적이란 판단에서 폐강되었습니다.

오세곤 지금 논의의 중점은 재교육 부분과 매개자 부분이에요. 하지만 무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빈틈이 있으니까 메운다는 개념이 있고요.

박신의 현재 문화예술 교육은 문예진흥원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찾아가는 예술' 과 같은 향수자 교육 프로그램은 위원회 전환 이후에도 실시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전환 이후에도 향수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세곤 교육 쪽과 겹치는 부분이 많죠.

사회자 일단 운영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선이 목표를 두고 있는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까지 2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책임운영제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법인화 방안인데 현재로서는 독립법인화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책임운영제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책임운영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전제가 되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2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책임운영제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법인화 방안인데 현재로서는 독립법인화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책임운영제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책임운영제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 등이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만 이를 둘러싼 논의가 부분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시지요.

책임운영제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 등이 중요한 문제로 보니다만 이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시지요.

오세곤 책임운영제라면 핵심이 기관장 공모인가요? 기관장 공모와 책임운영제라고 하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국립극장의 경우를 보면 책임운영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훨씬 더 긴장해서 열심히들 하는 면도 있겠지만 주차장, 초청공연을 하면서 재정자립도를 한 자리수에서 두 자리로 늘린 정도예요. 정동극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모델로 얘기하지만 거기도 역시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박신의 현재 예술극장에 책임운영제를 실시한다면, 지금과 같은 단순 대여가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관람객 확보 등의 시도가 주어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처럼 대관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특별히 책임운영의 여지가 어떤 식으로 발휘될 것인지는 의문이에요.

사회자 책임운영제는 운영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재정자립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이거든요.

오세곤 제 생각에는 만약 책임운영을 하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해당 예술의 성격에 맞게 잘 운영되었는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극장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거기에 맞게 가르치는데 똑같은 학교에서 전공한 사람이 취직해서 극장에 가면 완전히 경직이 돼서 안 합니다. 그러한 책임운영이라는 것이 원래의 목적에 맞추는 운영을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책임운영이 왜 필요한가요?

김갑수 운영체제에 대한 파트이기 때문에 운영예산 방안을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체제대로 기존해 왔던 시스템대로 운영을 유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위원회 소속으로 현재처럼 문예진흥원의 사무처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법인화해서, 즉 4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독립경영체제로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 법인화 할 경우에는 회계도 독립이 되고, 인력 등도 모두 독립이 되기 때문에 독립경영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고 재정자립도에 관한 압박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4대 시설의 공공성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술극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낮게 해주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생기는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2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라고 봅니다.

책임경영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기관장을 외부공모를 통해서 뽑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전문가에게 경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재정자립도를 올리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보관 같은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연수원

박신의 네. 그렇긴 하지만 공연장이라는 것은 질 높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얼마만큼 극장을 활성화시키느냐가 활동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극장의 경우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반면 미술관의 경우는 더더욱 어려운데, 잘 아시겠지만 마로니에미술관은 정말 관람객을 끌어들이기가 힘듭니다. 관람객 개 말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갑수 위원회의 체제에서 책임운영제를 운영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올릴 부담은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지금에 비해서 어려운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경영이 무사 안일 하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는 있겠죠.

박신의 국립극장의 경우에도 이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거든요.

오세곤 돈으로 약 20억 원 정도지요.

김갑수 그렇게 될 경우 문예진흥원의 직원들도 불안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직원들도 단체장에 다 응모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자 얼마 전 직원들 간에 토론을 했었습니다. 토론에서 나온 문제가 외부공모도 좋지만 관장이나 원장이 혼자 오면 밑에 있는 스태프들과 호흡이 잘 맞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책임운영상 효율성이 우려되는 점도 없

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외부공모가 성공하려면 경영능력이 우선인데요, 미술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장이 바뀌어도 큐레이터나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를 하지요. 그럴 경우 관장과 직원들 간에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관장은 같이 일할 사람을 바꾸고 싶기도 하겠지만,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함부로 직원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이런 문제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박신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국립현대미술관을 놓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관장만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학예실장까지도 공모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지요. 그 저변에는 관장에게 경영자율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인사자율권도 주어 실제로 경영에 대한 신념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관장이 새로 부임할 때 같이 일할 팀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학예실장까지도 공모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사회자 현재도 책임 큐레이터는 공모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신의 실제 관장만 새롭게 선임되었다고 해서 미술관의 운영방향이냐 성격이 바뀌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관장의 경영능력에 달렸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실제로는 팀웍으로 움직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따진다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관장이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미술관을 지켜오고 사업을 진행시켜온 학예실이 운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관장의 임기가 3년이라는 점도 경영의 자율성 실현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처음 부임 1년은 이전 관장이 기획한 사업하다가 지나가고, 그나마 2년째 조금 실현하다가 3년째는 다음에 실현될 것을 예상하고 자리를 물러나야 하니까요.

오세곤 문제의 위험성은 어디든 있는 거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겠지요.

박신의 그 어느 시설보다도 미술관은 기획력을 중시합니다. 단기간에 전시를 끝내는 일도 아니고 연중 쉬는 날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팀웍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특수성을 생각하면 책임운영제도도 이 같은 특수성 속에서 같이 가야한다고 봅니다.

김갑수 위원회가 예술가 중심으로 바뀌는 체제가 되는데, 이런 4대 시설도 예술가들이 직접 행정적인 업무를 운영하는 기회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앞으로 진흥원 직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그땐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도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되겠지요.

사회자 지금까지 책임운영제를 위한 선결 조건인 예산과 인사권의 확보,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향들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 중에 각 시설의 특성을 살려 조금 더 구체적인 개선방향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의 현재 미술관의 가장 큰 문제는 미술관 환경이라고 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술관의 관람객 유입이 지극히 적은 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시를 한다 해도, 접근성에서 관람객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마로니에 공원 사용자의 구성이 실제 미술관 이용자와 거리가 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원에 설치된 조형물이나 기념비도 미술관과 연계되기 거의 어렵습니다. 게다가 잦은 시위공간으로 할애되면서 아예 미술관으로의 진입을 막아버린다고 할 수 있지요. 심지어 공연예술의 메카로서 동승동의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마로니에미술관이 위축된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이런 환경적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지 않는다면 마로니에미술관의 관람객 유치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사동에 위치한 인사미술공간은 좀더 나은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좀더 젊은 작가들에게 전시기회도 주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 또한 마로니에미술관 프로그램과 연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결국 마로니에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미술관 전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동승동의 다른 미술 관련 연계시설들을 확보하여 레지던시나 리서치 프로그램, 워크숍 등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마로니에미술관을 평가하게 된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느냐의 여부로 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문화적 파급력, 예술적 성과 등을 따지는 지표가 제시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최소한 미술관 미술교육이 어떻게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것과 다른지가 지표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자 마로니에미술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시설에 비해 오래 전부터 개선안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바꿔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시설에 비해 제일 진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나 환경 문제 때문인지 작년에 조사한 대국민 서비스 평가에서는 거의 평균 이하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평가 자체를 그대로 모두 인정할 것은 아니지만,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또 하나는 마로니에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의 그 기능의 차별화와 호환성의 문제입니다. 다른 전시공간들과 차별된 특화된 전략 같은 것이 필요한 점이겠지요.

김갑수 인사미술공간은 다른 대안공간들과 비교했을 때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예산 수준이 어떤 편입니까?

박신의 다른 대안공간은 예산지원이 작아 작가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작가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사미술공간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하겠지요.

김갑수 인사미술공간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그 성과에 비해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회자 사실 그 동안 대안공간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 예전처럼 특화된 기능이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타 결핵이 아카이브를 만드는 등 새로운 기능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갑수 현재 문예진흥원 예산이 사업비만 1,100억 원입니다. 사실 1,100억 원을 집행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문예진흥원의 사업 유형을 보면, 각 사업들을 직접 기획에서 집행 정산까지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각 사업들을 하위 단체에 맡기고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사업운영 관리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세곤 각 관들이 책임운영체가 되고 기관장들이 각각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영역 안에서 유연성이 없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짜여진 예산이 있고,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하니 사실 개선하고 싶어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의 계획과 거기에 합당한 예산 확보가 되어야겠고,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 CEO뿐만 아니라 적어도 민간 차원에서의 논의 구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갑수 연수원이나 예술정보관의 시설활용도는 특히 낮은 편입니다.

예술정보관 같은 경우는 회원이 1,600명 정도이고, 일일 평균 100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예술정보관이 고전음악강좌 외에 단순 자료의 대출이나 정보검색의 기능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하여 전문자료 제공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런 자료들을 문화예술 활동에 관련된 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들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정보센터 같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된 활동체제가 확립되어야겠습니다.

박신의 연수원과 정보관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홍보가 잘 안 된 탓도 있다고 봅니다. 예술정보관의 경우 인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고, 실제로 단순자료제공에서 나아가 아카이브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방향이 전체적으로 나와야겠지요.

오세곤 예술정보관이 일차원적인 기능을 한다고 여겨진 데에는 자료의 보존이나 활용도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한번 하면 없어지는 건데, 그것을 충분히 자료화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인력문제를 들어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정보관을 별도로 아니면 확장을 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핵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신의 제 생각은 오히려 자료관의 공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자료 대여야 타 도서관에서도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료관을 전문자료관으로 공간과 이용시간을 축소하고, 나머지 공간과 시간은 정보수집과 DB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아카이브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예전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는 매 공연마다 2대 이상의 카메라를 들고 스태프들이 공연장에 상주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렇게 소스를 제작했는데, 지금은 그런 인력적인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점점 발전해야 하는데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 디지털화되는 것에 비해 그 성과는 미진하다 볼 수 있겠지요.

김갑수 예술정보관이 문화예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영상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 많은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 직접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도 개발해야 활성화 될 것입니다. 위기의식도 느껴야겠지요.

사회자 현재보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시설들을 전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선을 할 때 그 경제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와 그것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정비하고 점검하는 일이겠지요.

이런 점들을 내부준비실무 TF팀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검토안에 의하면 미술관과 극장은 우선적으로 책임운영시스템을 운영해 보고, 연수원과 정보관 같은 경우는 좀더 주기적인 관점으로 점검하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회 전환이 되었을 때 이 보고서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예술정보관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고, 필요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전 정비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바꾼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범운영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기타 사항이나 과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곤 각 시설들이 독립하게 된다면 직원들도 독립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의 책임감이 더 절실해져 더 열심히 일하고 뛰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 역시 활성화되고 강화되어 튼튼한 구조 확립이 더욱 빠를 수도 있구요.

박신의 미술관을 책임운영체로 한다고 하면, 내부직원이나 외부 민간 공모를 한다는 건데요. 일단은 시도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로니에미술관이 환경이나 여건이 그리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이미지를 만들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행정적인 평가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 자체가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치적인 재정자립도를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마치 학원미술교육을 대체하는 듯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놓고 재정자립도를 조절할 것인지는 꼭 짚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문예진흥원 내부인력이 관장으로 있으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만일 관장 선임이 민간전문인으로 된다면, 실제로 미술관 안팎의 환경과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위치로 그 활동 범위가 보장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오세곤 김갑수 과장님께서서는 기관장 근무와 외부전문가 인력, 그리고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평가지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술극장과 미술관의 경우엔 모델 제시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거나 아니면 예술 발표 현장을서 지원의 기능을 우선할 것이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현재 공연장 하나에서 모든 장르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모델 제시를 위한 예술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개선이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한 수량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고, 직접운영보다는 위탁운영이나 아웃소싱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김갑수 국립극장의 경우도 평가는 공연관계전문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들을 설정합니다. 평가항목을 결정할 때에는 국립극장이 수행해야 할 미션이 제일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박신의 제가 학교에서도 정책 평가 수업을 하느라고 국립극장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평가 지표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통일되면서 그리된 것이라 보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가

지표개발은 '차체적으로 설정하는 미션이 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마로니에미술관을 평가하게 된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느냐의 여부로 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문화적 파급력, 예술적 성과 등을 따지는 지표가 제시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최소한 미술관 미술교육이 어떻게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것과 다른지가 지표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의 효율만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근거를 다시 평가하면서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곤 평가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숨을 쉴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겠습니다.

박신의 내용을 무시한 비율만 따지는 항목은 아니어야겠지요.

오세곤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상당히 복잡한 얘기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

박신의 당분간은 위원회 체제 속에서 이 4대 시설 운영과 개선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아야겠습니다. 사실 개선방향이나 과제들은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바람은 지원정책을 실현하고, 또 실제로 실행되는 지원정책 속에서 새로운 지원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순환과정이 이 4대 시설을 통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회자 내부에서도 원론적인 얘기들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측면에 묶여서 진행하다보면 자칫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원 부설시설들의 운영 방향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전환을 앞두고 논의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여 더 나은 시설들로 거듭나는 데 요긴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진 | 안덕화(출판미디어사업팀)